



자재만현 스님의
염불선 이야기 <1>



붓다, 무아속 절대계에 계신다

자재만현은 먼저 오체투지하면서 삼가 삼계의 지존이시고 구원실성하신 최초불 석가모니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의 스승이시고 보살들의 상수이신 대지문수 사리보살님께 귀명하나이다. <화엄경> 심지품에 “보살이 제9 선혜지(善慧地)에 오르면 큰 삼매의 힘으로 부처님(化身)들을 뵈고,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다”는 말씀을 접할 수 있습니다. 붓다는 상주불멸하십니다. 붓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 곳이 있습니다. 다음은 약사 부처님의 법문입니다. “부처님은 마음 밖에 계신 것도 아니고 마음 안에 계신 것도 아니다. 무아속 절대계에 계신다. 마음은 안과 밖이 없어 움직이지 않아 여여하듯, 부처님 또

종구나 좋아. 분래부터 가진 것 없어 있는 그대로가 무아로다. 있다 없다. 분별심 놔 버리면 무아속 절대계의 빛인 것을.” 무아속 삼매의 환희는 이 세상 어떤 쾌락, 말초신경의 쾌감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아속 삼매, 적정삼매는 역경의 공덕과 수행을 쌓아 들에 괴는데, 처음에는 부처님의 위신력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삼매에 들기 전 ‘무량광(無量光)’이라는 부처님 빛을 보게 됩니다. <열반경>에선 이를 ‘열반광’이라 했고, 문수보살 관련 경전에서는 ‘억종광명(億種光明)’ <지장심결경>에선 ‘백종오색광명(百種五色光明)’, <미타 삼부경>에선 무량광이라고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빛명은 소위 견성(見性)할

佛身은 빛덩이로 존재
광도, 태양광의 수천배

한 그리 계신다. 다만 증생들이 분별하여 있다 없다 할 뿐, 부처님들은 무아속 절대세계에 계신다.” 독자 여러분, 나는 그동안 무던히도 오랜 세월 동안 ‘괴연 마음이 부처인(心即是佛)’, 마음의 본성을 깨치면 부처님이 되는 건지(見性成佛), 부처님이 되어 열반에 든 후에 어디로 가는지, 공(空) 자체가 되어버리는 건지’ 이를 화두로 삼고 ‘주인공, 마음을 깨치고자 즐겁 씩씩했 왔 습니다. 드디어 나는 부처님의 위신력에 이끌려 무아속 삼매에 들 수 있었습니다. “비었어라 비었어라, 먼지 하나 티끌 하나 없는 공의 세계, 맑고 깨끗한 청정 자체, 환희 환희 환희 그 자체인 것을, 종구나 좋다. 자재만현 스님은 1960년 부산 선암사에서 율사인 석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 통도사 경계 선사 문하에서 공부 했다. 조계종 총무원 교무, 포교, 재무부장 등을 역임하고 조

계종 중앙상임포교사로서 전국에서 설법했으며 해동불교대학 학장을 맡아 재가자 포교에 나서기도 했다. 현재 춘천 현지사 회주로서 후학 양성에 몰두하고 있다. 때 계계가 뒤집혀 온통 드러나는 자성광(自性光)과 비교할 때 천차이차이 다릅니다. 무량광은 또한 ‘자연의 빛(태양광)’과도 다릅니다. 안팎을 비춤니다. 광도 말하면, 여름 한낮 햇빛 속, 눈이 시려 볼 수 없는 태양 광도의 수천배가 된다고 할까요? 부처님 되신 분은, 이 육신과 육신 속 자기의 본체 외에 무아속 절대계, 곧 불체(佛界)에 자기 불신(佛身)을 갖게 되는데, 그 불신은 무량광이라고 하는 빛덩이로 이뤄져 있습니다. 붓다는 무량광이라고 하는 빛덩이를 하나 더 갖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을 교화에선 보신(報身) 혹은 법신(法身, 금강명경)이라 합니다. 금강불교의 진신입니다. 붓다는 영원불멸하는 ‘빛의 몸둥이(불신)’를 지니기 때문에 미래제가 다하도록 법도할 수 있습니다. (계속)

평화로운 침묵으로 ‘참나 찾기’



◇ 이동호 원장(아래)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있는 순일수련원 수련생들.

탐/방/ 순일수련원

12월 28일 경기 양평에 위치한 순일수련원, 10여 명의 수련생들이 ‘순일 이동호(44) 원장과 대화’ 시간을 갖고 있었다. 남양주 봉인사와 미내사클럽, 정신세계원 등에서 순일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이동호 원장은 너무나 평범한 모습으로 수련생과 어울려 편안한 수행문답을 나누고 있었다.



많은 체험을 여러 사람과 나누고자 책도 쓰고 수련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는 그의 ‘참나 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순일 프로그램을 간단히 정리하신다면?” “이곳의 프로그램은 우리가 삶을 살면서 모든 근심과 걱정, 원인이 과거의 번뇌와 미래에 대한 바람과 근심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소멸시키고 나아가 ‘거짓 나’를 녹임으로써 궁극적으로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하는 체험적 프로그램입니다.”

처음 수련원을 방문하는 초보 수행자들의 기초적인 질문에도 자상하게 답변하는 모습이 동네 형님 같다. 프로그램을 마친 수련생들의 성과를 묻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다.

“전 과정을 마치신 분들은 깊거나 얕은 다 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노력하면 늘 삼매에 듭니다. 삼매에는 노력해야 드는 삼매와 노력하지 않아도 늘 삼매상태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노력해서 언제든 들 수 있다면 점점 깊은 상태에 있게 되며 시간이 지날 수록 노력하지 않아도 늘 삼매 상태가 되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본연삼매입니다. 삼매란 참나의 상태 혹은 순수의식 상태입니다. 본래의 참마음입니다.”

말 없는 침묵과는 다른, ‘평화로운 침묵’을 성장기에 체험했다는 이동호 원장. 일찍이 인생의 모든 굴곡과 희로애락을 맛보겠다고 선언하고, 온몸으로 부딪히는 삶을 살아가다 어느 순간 15세 때의 그 평화로운 침묵을 재차 체험하고 ‘그것이 무언가’ 하는 의문을 가졌다. 삼매 체험이었음을 깨닫고 ‘참나’ 찾기에 집중, 자신의 근원과 하나되어 항상 온전한 평화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자신의 굴곡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4단계 순일 프로그램

1단계
강의·명상하며
번뇌 녹이기

▶번뇌소멸단계
강의와 문답, 참회 명상 등을 통해 과거에 살아오며 쌓여진 번뇌들이 쉬이 녹아내리게 한다. ‘죄의식’과 ‘분노’ 등 번뇌의 원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죄의식을 녹이는 방법은 잘못한 것에 대해 용서를 비는 것이다. 일반적인 참회를 통해 의식수준에 있는 과거의 죄의식은 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무의식에 있는, 스스로 막아놓은 죄의식은 여전히 번뇌로 남는다. 또한 참회 중에 늘 같은 패턴으로 반응하는 경향성을 보지 않는다면 살아가며 또 다시 같은 패턴의 죄의식을 쌓게 됨을 알게 한다.

2단계
무의식 속 번뇌
자면서 없애기

▶내외관통단계
의식으로 끌어 올리기 힘든 무의식에 저장된 번뇌들은 자면서도 꿈속에서 소멸되도록 한다. 꿈에서 명료하게 깨어 있게 되어 여러식은 과거를 이해하며, 미래에도 번뇌를 짓지 않게 된다. 자면서도 끊임없이 수행이 벌어진다. 번뇌들이 낮동안의 별다른 수행없이 녹아들며 몸은 빛으로 화하도록 한다. 결국 내외가 사라지며 우주와 관통하는 체험을 하게 된다. 깊어지면 꿈 없이 자면서도 깨어있음이 벌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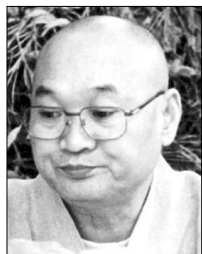
3단계
죽음에 대한
두려움 뿌리 뽑기

▶비암명단계
어두움과 유기체(몸) 소멸에 대한 총체적 두려움의 뿌리를 본다. 두려움이 사라지며 온 우주가 내 안에 있음을 실제적으로 느낀다. 투명한 내안에 삼라만상이 늘 존재함을 느낀다. 생각대로 살게 되어지는 삶을 이해하고 보게 되며, 부정적인 생각의 경향성(업식)이 사라진다. 온전히 보게 되었다면 경향성은 전제로 무너지며, 죽은 생각이 아닌 살아있는 본래마음이 된다.

4단계
늘 삼매 상태로
우주와 하나되기

▶삼매단계
깊음의 차이는 있을 망정 노력하면 늘 삼매에 든다. 참마음의 상태에서 나비를 보고는 나비가 되며 개나리를 보고는 개나리가 된다. 대상과 하나되는 상태가 벌어지며, 깊어지면 오로지 깨어있음만 상태가 된다. 참마음 상태에서 지복을 느끼게 된다. 이라고 하면 온전자(전체자, 무한)가 되는 지혜가 생긴다. 마지막 지혜가 있게 된다면 일순간에 무한자가 된다. (031)771-9765

청봉스님, 육조단경 강설



인터넷 다음카페(cafe.daum.net/buddhajukbi)에서 ‘장군죽비’라는 아이디로 재가자들의 선수행을 지도해 온 서울 불심정사 조실 청봉스님이 오프 라인상에서도 본격적인 선지도에 나섰다. 최근 <육조단경>(경서원)을 출간한 청봉 스님은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불심정사에서 ‘육조단경 강설’을 개

설하고 매주 첫, 셋째 일요일 오전 10시 선법문 및 문답 시간을 갖는다. 덕숭총림 수덕사 초대방장 해암 스님의 제자인 청봉 스님은 <육조단경> 서문에서 “조계 육조 대사의 도행(道行)을 기록한 육조단경은 선지법문의 소의경전이나 다른 법은 최상의 법문”이라며 “상근기로서 법을 구하는 선 수행자라면 수지해서 귀감으로 삼아야 할 필독서”라고 밝혔다. 청봉 스님은 “다만 글을 쫓아 외우고 글에 굴복을 당하지 말고, 그 글이 온데의 오묘한 뜻을 참구해 계몽하게 되면 깨달음을 증득할 것이며 글(법문)을 가히 굴린다 할 것”이라며 선어록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02)534-7515

금강불교대학 2548년(2004) 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

본 대학은 국내최고의 교수진을 초빙하여 운영하는 불교교양대학으로서 한국불교중흥과 불교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하는 천태종 종립교육 기관입니다. 입학의 문은 신도 뿐만 아니라 불교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학과	지역 (기수)	교육과정	교과목	교육일시	지원자격	특전		
불교학과	초급과정	1년	신행입문, 원시불교, 불교학개론, 불전이해, 불교경전개설	매주 월요일 1교시: 오후 6시 30분 ~ 90분간 2교시: 오후 8시 00분 ~ 90분간	• 불교에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응시 가능합니다.	• 수업료는 종단에서 지원 • 수료 후 종단반 전학 자격 취득		
		중급과정 (서울21기, 부산16기)	1년	한국불교사, 범법경요해, 대승불교사상, 천태지관	매주 화요일 1교시: 오후 6시 30분 ~ 90분간 2교시: 오후 8시 00분 ~ 90분간	• 본교 초급과정 수료자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	• 수업료는 종단에서 지원 • 졸업 후 교법사과정 전학 자격 취득	
교법사과정	서울(11기) 부산(11기)	1년	정토사상, 유마경, 금강경, 포교방법론, 화엄학, 불교종교, 밀교사상, 천태종학, 열반경	매주 수, 목 1교시: 오후 6시 30분 ~ 90분간 2교시: 오후 8시 00분 ~ 90분간	① 본교 중급과정 졸업자 또는 ② 불교전문 교육 2년 과정의 수료자	• 수업료는 종단에서 지원 • 졸업 후 별도 시험 과정을 통하여 종단 교법사 선발		
학과	모집정원	제출서류	면접일시	원서교부 및 접수	원서료	전형방법	입학식	
불교학과	서울 부산 각 120명	초급과정	가. 입학원서 1부(본교 소정양식)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범법경원서진 4매(원서용포함)	*서울: 2004년 2월 26일 오후 6시 *부산: 2004년 3월 1일 오후 6시	가. 기 간: 2003년 11월 20일 ~ 2003년 2월 16일 오후 4시까지	원서료: 5,000원	가. 1차 서류 나. 2차 면접	*서울: 2004년 3월 6일 오후 2시 *부산: 2004년 3월 7일 오전 11시
		중급과정	가. 중급과정 지원서 1부 나. 사진 2매	서류전형	나. 접수처: 서울, 부산 금강불교대학 교무과			
교법사과정	서울·부산 각 50명	가. 교법사과정 지원서 1부 나. 사진 1매	*서울: 2004년 2월 27일 오후 6시 *부산: 2004년 3월 2일 오후 6시					

[서울 금강불교대학]
서울 교무과 02-576-6401 신촌성통사 02-336-2052 봉천동명령사 02-889-7272 강동구강사 02-479-4450
망우동성통사 02-496-3839 구로명화사 02-854-0196 분당 대광사 031-715-3000 인천연화사 032-873-0747
수원용광사 031-255-4105 안양대안사 031-459-3666 성남화성사 031-745-1482 구리금성사 031-563-9364
평택명정사 031-655-9090

[부산 금강불교대학]
부산교무과 051-808-0730 울산정광사 052-277-7100 마산삼학사 055-244-6464 대구대성사 053-651-6108
포항황해사 054-277-3611 김해해성사 055-336-3585

◆ 서울 금강불교대학 ◆ 부산 금강불교대학

◆ 면접 후 개별통보

◆ 서울: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56번지 관문사내 2층 Tel: (02)576-6401~2 FAX: (02)574-1541
- 양재역 성남빌딩 7번출구 마을버스 05, 06번 버스 (LG연구소 우면APT에서 하차)
- 강남역 6번출구 414번 버스

◆ 부산: 부산광역시 진구 초읍동 131번지 삼광사내 Tel: (051)808-0730, 0713 FAX: (051)819-7654
- 어린이대공원 인접지에 위치함

- 이재창-금강불교대학학장 원의범-동국대명예교수 김영태-동국대명예교수 리영재-동국대명예교수 권기중-동국대학교수
- 서운길-동국대학교수 장중식-동국대학교수 김상현-동국대학교수 이봉춘-동국대학교수 조용길-동국대학교수
- 박경준-동국대학교수 김용표-동국대학교수 권탄준-금강대학교수 지창규-동국대학교수 최중석-동국대학교수
- 허경구-동국대학교수 김승일-국민대학교수 이동우-동국대학교수 최기표-동국대학교수 정성준-동국대학교수
- 최봉수-동국대학교수 오지연-동국대학교수 김은희-동국대학교수